

보도해명자료 (‘16.5.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獨 지멘스·KT만 배불리는 스마트공장 사업

(‘16.5.26. 아주경제)

1. 기사내용

- ☐ 반월시화산단 스마트공장 조성사업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자로 지멘스 선정, 타업체 장비 못써
- ☐ 통신인프라 구축사업은 KT단독으로 선정, 경쟁입찰 없이 449억원 규모 수의계약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☐ 지멘스는 반월시화산단에 구축 추진중인 데모 스마트공장의 참여기업의 하나이며, 지멘스 장비만 사용하기 때문에 타업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- 데모 스마트공장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미래 스마트공장 모습을 보여주는 실험형 공장으로 국내외 주요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특정업체 중심으로 설비가 구축되는 것이 아님

* 국내기관 : LS산전, 현대위아, 포스코ICT, 엠케이로봇, 오토닉스, 유디엠텍, 유도, 미라콤, 엑센솔루션, 케이에스테크 등 20개 기업과 전품연, 생기연 등 연구기관 참여

* 해외 : 지멘스, GE, KUKA, 액센츄어, 유알로봇 등

- 참여기업과 연구기관은 협업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공장 첨단기술(IoT, CPS, 빅데이터 등) 사전검증, 표준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됨

- ☐ 반월시화산단내 스마트 통신인프라 구축은 정부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

- KT가 ‘18년까지 449억원을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반월시화산단내 스마트 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,
- SKT,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도 자발적인 투자를 통해 상시 참여가 가능함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공장팀 김범수 팀장 (044-203-4239)

정민규 사무관 (044-203-4235)